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of Preschoolers :
Children of Interracial Families in Rural Areas*

박경자(Kyung Ja Park)¹⁾

김송이(Song Yee Kim)²⁾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ttachment representation, self-perception, and social competence of preschoolers of interracial families in rural areas. Participants were 60 3- to 5-year-old preschoolers with Korean father-other Asian national mother group and 91 3- to 5-year-old preschoolers with Korean father-Korean mother group in rural areas. Results were that 58% of preschool children of interracial families were securely attached, 30% were insecure-disorder type, and 12% were insecure-avoidance type. Preschool children of interracial families were rated by their teachers as showing more withdrawn behaviors and prosocial behaviors than preschool children of Korean parents. A sex difference in the interracial family group showed boys with more withdrawn behaviors than girls.

Key Words : 국제결혼가정 유아(preschool children of interracial family), 애착 표상(attachment representation), 자아지각(self-perception), 사회적 유능성(social competence).

I. 서론

세계화와 함께 정치·사회적인 변화, 경제 성장, 그리고 여성들의 의식 변화의 결과로 미혼 남성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국제

결혼이 하나의 대안적인 결혼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통계청(2007) 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에 국제결혼은 전체 결혼건수 중 11.9%로, 1999년도에 1.2%였던 것에 비해 10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특히 각 지역자치단체에서 ‘농촌 총각 장가

* 이 논문은 2005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5-041-C00489).

¹⁾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수

²⁾ 연세대학교 어린이생활지도연구원 부원장

Corresponding Author : Kyung Ja Park,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134 Shinchondong, Seodaemun-gu, Seoul 120-749, Korea
E-mail : kjpark@yonsei.ac.kr

보내기' 운동의 한 방편으로 국제결혼을 추진하면서 2006년도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한국인 남성의 41.0%가 외국인 여성과 결혼할 정도로 국제결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제결혼 수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게서 태어난 2세대도 점차 증가하여, 2006년 4월 현재 국제결혼가정 자녀수는 30,727명에 달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국내에서 혼혈인구가 16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이와 같이 국제결혼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면, 우리 사회도 더 이상 '단일민족의식'을 내세우며 국제결혼가정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차별을 하기보다는 보편적 인권의 관점과, 이들의 자녀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임을 고려하여 국제결혼가족을 우리 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으로 통합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보다 일찍 농촌 국제결혼이 활성화된 일본의 경우에도,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문화와 언어에 따른 문제, 그리고 2세대의 정체성과 교육 문제가 주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쯔지모토, 2003)에서 우리도 이들에 대한 학문적인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영·유아는 긍정적인 발달과 적응에 있어 가족 환경, 특히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시점에서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유아가 최초로 접하는 환경이 가족이고, 특히 어린 시기에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사회·정서 발달의 토대가 형성되며, 이 시기의 긍정적인 발달이 이후의 성격이나 사회적 능력,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Belsky, Rovine, & Taylor, 1984). 유아는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서 자신에 대한 이해와 타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세상에 대한 기본적 신뢰감을 형성하고 가치관을 내면화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에 의미 있

는 영향을 미친다. 최근 발표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국제결혼가정은 경제적인 빈곤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남편 및 시부모와의 갈등, 가정 폭력, 자녀 양육 및 교육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설동훈·김운태·김현미·윤홍식·이혜경·임경택·정기선·주영수·한건수, 2005; 이미숙, 2005; 이혜경, 2005; 한국염, 2005). 이처럼 농촌의 지역적 특성과 국제결혼의 특성들을 고려해볼 때, 농촌지역의 국제결혼여성들은 생활 속에서 상당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고,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가 자녀 양육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는 부모 자신과 아동의 특성 뿐 아니라, 부모가 경험하는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지원 등에 달려 있다는 점(Bronfenbrenner, 1986)에서 국제결혼가정의 어려움들은 이들의 부모 효능감이나 양육행동에 반영되고, 이것이 자녀와의 애착, 자아존중감, 또래 관계와 같은 사회·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박미경·엄정애(2007)가 국제결혼가정 유아가 재원하고 있는 유아교육기관을 참여 관찰하고 교사와의 심층면담을 통해서 유아의 특성과 구성원들의 태도를 살펴본 연구 외에는 이러한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 유아의 부모와의 애착 표상, 자아지각, 사회적 유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사회·정서적 발달 양상을 알아보려고 한다. 또한 국제결혼가정 유아들의 성에 따라 사회·정서 발달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이들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애착이란 생의 초기에 영아가 양육자에게 형성하는 특별한 애정적인 결속이나 유대 관계로

(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영아가 주양육자와 형성하는 애착의 질은 이후 아동의 인지, 사회, 정서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Rose-Krasnor, Rubin, Booth, & Coplan, 1996). 자신을 지지해주고 가치 있게 대해주는 주양육자와 안정적 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자아와 애착 대상에 대해 안정적인 실행모형을 가지게 되어, 사회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자기 효능감을 가지게 된다. 이에 반해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여 불안정한 실행모형을 가지게 된 유아는 불안해하고 자신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고 부정적인 기대와 믿음을 가져서, 이후의 관계에서 불신, 무감각, 분노, 공격, 공감의 부족 등을 나타낸다(Bretherton & Munholland, 1999). 국제결혼가정의 어머니가 익숙하지 않은 문화에 적응해나가는 과정에서 생활 속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자녀양육 실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국제결혼가정 유아가 어머니에게 형성한 애착의 유형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가정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에 있어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어머니에 대한 애착 표상을 조사해 보고자 한다.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은 유아가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와도 관련된다(Cassidy, 1988; Harter, 1990). 유아기의 자아지각은 이후의 학업 성취 및 대인 관계, 정서적 성숙에 영향을 미치므로 유아기에 긍정적 자아지각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아지각 발달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유아는 타인과는 다른 내적인 특성을 가진 존재로 자신을 지각하지만, 이러한 자아에 대한 지각이 자신의 신체적 특징이나 자신이 할 수 있는 활동 등의 구체적 사실에 기초한다(Shaffer, 2005). 국제결혼가정 유아는 이국적인 외모와 언어 발달의 지연으로 인해 또

래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거나 정체성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오성배, 2005). 또한 유아와 최초로 사회적 관계를 맺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행동이나 태도가 유아의 자아지각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른 문화에서 자란 어머니의 양육방식에서의 차이가 예상되고, 이것이 국제결혼가정 유아의 자아지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유아기는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시작되고 사회적 유능성의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에 형성된 사회적 유능성은 이후의 아동기와 청년기의 사회적 적응 문제와 관련이 된다(Crick, 1996). 사회적 유능성이 부족한 아동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갖거나 또래에게 거부되는 등 발달상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이후 삶에서 부적응의 위험이 있다. 사회적 유능성은 다양한 변인의 영향을 받지만 연구자들은 특히 유아와 처음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는 주양육자의 역할에 관심을 가졌다. 선행 연구들은 부모가 온정적이고 협력적이며 민감하고 적절하게 반응할 경우, 유아는 더 친사회적이고 위축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고, 또래에게 더 잘 수용된다고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반면 부모가 유아의 신호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강압적이거나 회피적인 상호작용을 할 때에 유아는 공격적이고 불안해하거나 위축되는 등 사회·정서적으로 부적응적인 행동을 보인다(권연희·박경자, 2003).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은 생애 초기부터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의 유아를 중심으로 이들이 유아교육기관에서 또래 및 교사와 상호작용하는데 있어 주로 어떠한 사회적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또한 아동이 발달함에 따라 필요한 인지적, 정서적 기술이 달라지

고, 적응해야 하는 사회적 맥락이 변화함에 따라 요구되는 사회적 유능성이 달라지고, 바람직한 기준과 가치가 사회 문화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 유능성의 개념이 각 문화권에 따라, 그리고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권연희·박경자, 2003). 이에 두 가지 문화 속에서 양육되고 있는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의 사회적 유능성이 교실에서 어떠한 행동으로 나타나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이 사회·정서적으로 어떻게 발달하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이를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표상, 자아지각, 사회적 유능성을 통해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현재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한 연구가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국제결혼가정 유아의 사회·정서적 발달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들과 동일한 사회적 맥락에서 자라고 있는 농촌지역의 일반 가정 자녀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또한 국제결혼가정 유아들의 사회·정서 발달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이들의 애착 표상, 자아 지각, 사회적 유능성이 유아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국제결혼가정 유아의 애착 표상은 일반가정 유아와 차이가 있는가? 또한 유아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국제결혼가정 유아의 자아지각은 일반가정 유아와 차이가 있는가? 또한 유아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국제결혼가정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은 일반가정 유아와 차이가 있는가? 또한 유아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의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만 3, 4, 5세 유아 151명으로,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 유아와 일반가정 유아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먼저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 유아를 선정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의 군별 유치원 및 어린이집 목록과 그 곳에 등록되어 있는 국제결혼가정 유아의 명단을 구하였다. 국제결혼은 배우자의 성, 국적, 결혼의 이유 등이 매우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가정 중에서도 한국 남성과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계 여성과의 결혼만을 대상으로 하였다¹⁾. 이러한 유형의 국제결혼가정에서 만 3~5세 유아를 선정하고, 이 유아들이 다니고 있는 기관과 부모로부터 연구 협조를 구하여 연구 참여에 동의한 유아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국제결혼가정 유아 78명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자료 수집을 하였으나, 자료 수집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자료가 누락된 대상 9명과 애착 표상과 관련하여 유아의 언어 능력을 통제하기 위해 측정된 언어성 지능의 환산점수가 기준에 속하지 않은 유아 9명²⁾을 제외하고

1) 통계청(2007) 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 남자와 결혼한 외국 여자의 국적은 베트남이 67.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중국(20.4%), 필리핀(4.8%)의 순이었다.
2) 유아의 애착 표상에 유아의 언어 능력이 미칠 수 있는 가능한 효과(Solomon & George, 1999)를 통제하기 위해 박혜원·곽금주·박광배(1995)가 표준화한 한국 웅슬러 유아지능검사의 언어성 척도를 실시하였다. 검사 결과 유아의 언어성 척도의 환산점수 합이 박혜원 등(1995)이 제시한 언어성 척도의 환산점수 합의 연령별 평균 및 표준편차에 근거하여 -2 표

〈표 1〉 연구 대상 유아의 연령 및 성별 분포

| | 3 세 | | | 4 세 | | | 5 세 | | | 전 체 | | |
|--------|-----|----|----|-----|----|----|-----|----|----|-----|----|-----|
| | 남 | 여 | 전체 | 남 | 여 | 전체 | 남 | 여 | 전체 | 남 | 여 | 전체 |
| 국제결혼가정 | 5 | 4 | 9 | 12 | 6 | 18 | 20 | 13 | 33 | 37 | 23 | 60 |
| 일반 가정 | 12 | 13 | 25 | 18 | 17 | 35 | 15 | 16 | 31 | 45 | 46 | 91 |
| 전 체 | 17 | 17 | 34 | 30 | 23 | 53 | 35 | 29 | 64 | 82 | 69 | 151 |

총 60명의 국제결혼가정 유아(남아 37명, 여아 23명)가 분석 대상이 되었다. 또한 비교집단인 농촌지역 일반가정 유아를 선정하기 위해 국제결혼가정 유아가 많이 다녔던 어린이집 두 곳을 선정하여 이곳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10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중에서 자료가 불충분한 대상 2명과 언어성 지능의 환산점수가 기준에 속하지 않은 유아 7명을 제외하고 총 91명의 유아(남아 45명, 여아 46명)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유아의 연령 및 성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연구 대상 유아 가정의 인구학적 배경은 <표 2>에 제시하였다.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 유아의 경우 어머니 연령은 31~35세가 38.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36~40세가 23.3%의 순이었고, 일반가정 유아의 어머니 연령은 31~35세가 34.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26~30세가 23.1%의 순이었다. 어머니 평균 연령은 국제결혼가정은 36세, 일반가정은 32세였다. 교육 수준은 국제결혼가정 어머니는 고졸이 38.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대졸(31.7%)의 순이었으며, 일반가정 어머니는 고졸이 51.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대졸 25.3%의 순이었다. 어머니 직업은 국제결혼가정과 일반가정 모두 전업 주부가 35.0%와 60.4%로 가장 많았으며, 아버지의 직업은 국제결혼가정의 경우 단순노무/운수/생산직, 사무

직, 농·어·축산업의 순이었으며, 일반가정의 경우 사무직, 단순노무/운수/생산직, 서비스/판매직의 순이었다. 가정의 년 수입은 국제결혼가정의 경우 500만원 미만(25.0%)과 1,000~1,500만원(20.0%)이 많았으며, 일반가정의 경우 2,000~2,500만원과 3,000만원 이상이 각각 16.5%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국제결혼가정 어머니의 출신국은 필리핀이 50.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중국(18.3%)이었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유아의 애착 표상, 자아지각, 사회적 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는 다음과 같다.

1) 애착 표상

유아의 애착 표상을 측정하기 위해 Bretherton, Ridgeway와 Cassidy(1990)의 애착 이야기 완성 과제(Attachment Story Completion Task : ASCT)를 박경자·권연희(2005)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유아의 애착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먼저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남자/여자 아동으로 구성된 인형 가족을 사용하여 유아가 애착과 관련된 주제로 구성된 5가지 이야기(주스를 엮질렀어요. 귀신, 무릎을 다쳤어요, 격리, 재결합)를 완성하게 하였다. 유아가 완성한 5가지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 내용과 구조, 정서적 분위기, 행

준편차 이내(연령별로 31.8~33.5점; 95%의 유아)에 속하는 유아만을 본 연구의 대상에 포함하였다.

〈표 2〉 연구 대상 가정의 인구학적 배경

| 배경 변인 | 범 주 | 국제결혼가정(n=60) 빈도 (%) | 일반가정(n=91) 빈도 (%) |
|-----------|------------------|------------------------|----------------------|
| 어머니 연령 | 21~25세 | 0 (0.0) | 5 (5.5) |
| | 26~30세 | 4 (6.7) | 21 (23.1) |
| | 31~35세 | 23 (38.3) | 31 (34.1) |
| | 36~40세 | 14 (23.3) | 15 (16.5) |
| | 41세 이상 | 9 (15.0) | 4 (4.4) |
| | 무 응 답 | 10 (16.7) | 15 (16.5) |
| 어머니 교육 수준 | 중졸 이하 | 3 (5.0) | 6 (6.6) |
| | 고 졸 | 23 (38.4) | 47 (51.6) |
| | 대 졸 | 19 (31.7) | 23 (25.3) |
| | 대학원 이상 | 5 (8.3) | 0 (0.0) |
| | 무 응 답 | 10 (16.7) | 15 (16.5) |
| 어머니 직업 | 전업 주부 | 21 (35.0) | 55 (60.4) |
| | 단순노무직/생산직 | 3 (5.0) | 1 (1.1) |
| | 서비스직/판매직 | 1 (1.7) | 7 (7.7) |
| | 사 무 직 | 4 (6.7) | 5 (5.5) |
| | 행정관리 및 전문직 | 2 (3.3) | 1 (1.1) |
| | 기 타 | 8 (13.3) | 5 (5.5) |
| | 무 응 답 | 21 (35.0) | 17 (18.7) |
| 어머니 출신국 | 중 국 | 11 (18.3) | |
| | 한국계 중국 | 2 (3.3) | |
| | 필 리 핀 | 30 (50.0) | |
| | 베 트 남 | 2 (3.3) | |
| | 기 타 | 5 (8.3) | |
| | 무 응 답 | 10 (16.7) | |
| 아버지 직업 | 무 직 | 2 (3.3) | 2 (2.2) |
| | 단순노무직/운수직/생산직 | 14 (23.3) | 17 (18.7) |
| | 농·어·축산업 | 8 (13.3) | 5 (5.5) |
| | 서비스직/판매직 | 2 (3.3) | 16 (17.6) |
| | 사 무 직 | 9 (15.0) | 18 (19.8) |
| | 행정관리 및 전문직 | 0 (0.0) | 4 (4.4) |
| | 기 타 | 3 (5.0) | 8 (8.8) |
| | 무 응 답 | 22 (36.7) | 21 (23.1) |
| 년 수입 | 500만원 미만 | 15 (25.0) | 5 (5.5) |
| | 500~1,000만원 미만 | 6 (10.0) | 8 (8.8) |
| | 1,000~1,500만원 미만 | 12 (20.0) | 7 (7.7) |
| | 1,500~2,000만원 미만 | 5 (8.3) | 10 (11.0) |
| | 2,000~2,500만원 미만 | 4 (6.7) | 15 (16.5) |
| | 2,500~3,000만원 미만 | 3 (5.0) | 10 (10.0) |
| | 3,000만원 이상 | 4 (6.7) | 15 (16.5) |
| | 무 응 답 | 11 (28.3) | 21 (23.1) |

동 등을 모두 고려하여 각 이야기의 내용, 과정, 해결, 일관성에 대해 Golby, Bretherton, Winn과 Page(1995)의 지침에 근거하여 코딩하였다. 각 이야기에 대한 코딩 기록지가 완성된 후 5개 이야기 전체에 대하여 Bretherton 등(1990)의 분류 기준에 근거하여 유아의 애착 유형을 ‘매우 안정’, ‘비교적 안정’, ‘불안정-회피’, ‘불안정-비조직’으로 분류하였다³⁾. 이와 같이 분류한 애착 유형은 통계 분석을 위해 Maslin, Bretherton과 Morgan(1986)의 애착 표상의 안정성 점수로 전환하여, ‘매우 안정(4)’, ‘비교적 안정(3)’, ‘비교적 불안정-회피, 비교적 불안정-비조직(2)’, ‘매우 불안정-회피, 매우 불안정-비조직(1)’의 4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각 이야기의 내용과 구조, 과정 해결, 일관성 평정과 애착 유형 분류의 훈련을 위해서 아동·가족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 4명을 대상으로 관찰자 훈련을 실시하였다. 관찰자들은 먼저 코딩지침을 숙지하고, 박경자·권연희(2005) 연구에서 사용된 애착 이야기 완성 과제 녹화 테이프를 이용하여 각 이야기에 대한 평정과 유형 분류 기준에 대한 훈련을 아동발달전문가 1명으로부터 받았다. 이후 4명의 관찰자들은 예비조사에 참여한 4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각 이야기에 대한 평정과 애착 유형을 분류하였고, 관찰자간 일치도가 94%에 도달하여 관찰자 훈련을 종료하였다.

3) 전체 이야기에서 주제가 일관적이고 적절하게 해결하면 ‘매우 안정’ 애착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한 두 개의 이야기에 대해서 회피나 이상한 반응을 보이면 ‘비교적 안정’ 애착 유형으로, 3개 이상의 이야기에 대해서 강하게 회피적인 반응을 보이면 ‘불안정-회피’ 애착 유형으로, 3개 이상의 이야기에 대해서 비조직적이고 이상한 반응을 보이면 ‘불안정-비조직’ 애착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2) 자아지각

유아의 자아지각은 Harter와 Pike(1984)의 지각된 능력과 사회적 수용 그림척도(The Pictorial Scale of Perceived Competence and Social Acceptance for Young Children)에 기초하여 이은혜·최혜영·김미해(1990)가 우리나라 아동들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척도 중 유치원 아동용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인지 능력, 신체 능력, 또래 수용, 어머니 수용의 4개 영역에 대한 아동의 지각에 기초를 둔 자기 보고식 척도로서 각 영역별 6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지 능력 영역은 기본적인 준비도 기술을 포함하여 이에 대한 자아지각을 측정하며, 신체 능력 영역은 대근육 활동으로 달리고 뛰는 능력 및 소근육 활동으로 오리기와 단추 끼우기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아지각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또래 수용 영역은 또래 관계에서 유아가 얼마나 수용된다고 지각하는지에 관련된 문항들이며, 어머니 수용 능력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유아가 얼마나 수용되고 있다고 지각하는지에 관한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본 도구의 하위 영역별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α 는 인지 능력은 .79, 신체 능력은 .71, 또래 수용은 .71, 어머니 수용은 .77이었다.

3) 사회적 유능성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LaFrenier와 Dumas(1996)의 사회적 유능성과 행동 평정(Social Competence and Behavior Evaluation) 간편형을 권연희와 박경자(2003)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교사가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친사회적 행동 10문항(예 : 다른 아동과 놀잇감을 공유한다), 위축된 행동 10문항(예 : 비활동적이며, 다른 아동의 놀이를 쳐다본다), 공격적 행동 10문항(예 : 다른 아동을 때리

거나 찬다)의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는 각 문항에 대하여 평소 아동이 보인 행동을 근거로,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까지의 6점 척도로 응답한다. 영역별 점수가 높을수록 기관에서 해당 하위 영역의 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α 는 .89였으며, 위축된 행동은 .90, 공격적 행동은 .83이었다.

3. 연구 절차

1) 예비 조사

예비 조사는 2006년 6월 30일부터 7월 11일에 걸쳐 애착 이야기 완성 과제의 면접 과정에 대한 훈련과 소품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만 3, 4세 유아 4명을 대상으로 대학교 내에 위치한 유아 관찰실과 유아의 가정에서 아동·가족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1명이 유아를 대상으로 애착 이야기 완성 과제를 실시하였고, 면접의 전 과정은 비디오로 녹화하였다. 예비 조사 결과, 소품이 대상 연령에 적합하고 검사자의 면접 과정에 대한 훈련이 충분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2) 본 조사

본 조사는 2006년 7월에서 11월 사이에 유아가 다니고 있는 각 기관을 방문하여, 기관에서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애착 이야기 완성 과제 면접과 자아지각 척도, 한국 웨슬러 유아지능검사를 대상 유아에게 개별적으로 실시하였다. 검사자는 유아와 라포를 형성한 후, 자아지각 척도와 애착 이야기 완성 과제를 실시하였으며, 휴식 시간을 가진 후 유아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애착 이야기 완성 과제 면접의 전 과정은 비디오로

녹화하였다. 또한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담임교사에게 각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정도를 평정하게 하였고, 가정의 인구학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부모에게 한국어나 모국어(중국어, 베트남어, 영어)로 작성된 질문지를 배부하여 조사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계 처리하였다. 첫째, 애착 이야기 완성 과제에 대한 유아의 반응을 분석하여 애착 유형을 구분하고 유아의 애착 유형별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 유아의 애착 표상, 자아지각, 사회적 유능성이 일반가정 유아와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유아의 성에 따라 애착 표상, 자아지각, 사회적 유능성이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t 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및 해석

1. 유아의 애착 표상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표상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애착 유형이 어떠한 분포를 이루는지 알아보았다(<표 3> 참고). 애착 유형은 5가지 애착 관련 이야기에 대한 유아의 응답에 기초하여 '매우 안정', '비교적 안정', '불안정-회피', '불안정-비조직'으로 분류하였다. 표에서 보듯이 국제결혼가정 유아의 경우, 어머니에 대해 '매우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유

<표 3> 유아의 애착 유형과 애착 표상의 안정성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 가족유형 | 구분 | 성 | 애착 유형 | | | | 애착 표상 안정성 M (SD) | t |
|----------------|--------------------------------|----------|-----------------|------------------|------------------|-------------------|------------------------|-----|
| | | | 매우 안정 빈도 (%) | 비교적 안정 빈도 (%) | 불안정-회피 빈도 (%) | 불안정-비조직 빈도 (%) | | |
| 국제 결혼 가정 | 남(n=37) 여(n=23) 전체(n=60) | 남(n=37) | 6 (16.2) | 15 (40.5) | 5 (13.5) | 11 (29.7) | 2.62 (.89) | .34 |
| | | 여(n=23) | 9 (39.1) | 5 (21.7) | 2 (8.7) | 7 (30.4) | 2.91 (1.00) | |
| | | 전체(n=60) | 15 (25.0) | 20 (33.3) | 7 (11.7) | 18 (30.0) | 2.73 (.94) | |
| 일반 가정 | 남(n=45) 여(n=46) 전체(n=91) | 남(n=45) | 6 (13.3) | 16 (35.6) | 12 (26.7) | 11 (24.4) | 2.51 (.87) | |
| | | 여(n=46) | 13 (28.3) | 20 (43.5) | 5 (10.9) | 8 (17.4) | 2.83 (.94) | |
| | | 전체(n=91) | 19 (20.9) | 36 (39.6) | 17 (18.7) | 19 (20.9) | 2.68 (.92) | |

아는 25.0%, ‘비교적 안정’된 애착을 형성을 유아는 33.3%로 58.3%의 유아가 어머니에 대해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불안정-회피’ 애착 유형은 11.7%, ‘불안정-비조직’ 애착 유형은 30.0%였다. 이러한 국제결혼가정 유아의 애착 유형이 일반가정 유아에 비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반가정 유아의 애착 유형을 <표 3>에 제시하였다. 일반가정 유아의 경우, 어머니와 ‘매우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20.9%, ‘비교적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39.6%로 국제결혼가정 유아와 비슷하게 60.5%의 유아가 어머니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정-회피’ 애착 유형과 ‘불안정-비조직’ 애착 유형은 각각 18.7%, 20.9%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애착 유형은 통계 분석을 위해 Maslin 등(1986)의 기준에 따라 애착 표상의 안정성 점수로 전환하였다(<표 3 >참고). 표에서 보듯이 국제결혼가정 유아의 애착 표상의 안정성 점수의 평균은 2.73, 일반유아는 2.68이었다.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가족 유형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t_{58}=.34, n.s.$).

다음으로 국제결혼가정 유아의 성에 따라 어머니에 대한 애착 유형이 어떠한 분포를 이루는지

살펴본 결과, 남아들은 어머니와 ‘비교적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비율이 40.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불안정-비조직’(29.7%)이었으며, ‘매우 안정’(16.2%), ‘불안정-회피’(13.5%)의 순이었다. 그리고 여아들의 경우에는 어머니와 ‘매우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비율이 39.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불안정-비조직’(30.4%), ‘비교적 안정’(21.7%), ‘불안정-회피’(8.7%)의 순이었다. 국제결혼가정 유아의 애착 표상의 안정성 점수의 평균은 남아는 2.62, 여아는 2.91로 여아가 남아에 비해 어머니에 대한 애착 안정성 점수가 더 높은 경향이었다. 애착 표상의 안정성 점수가 유아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 유아의 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_{58}=-1.18, n.s.$).

국제결혼가정 유아의 성에 따른 분포를 비교하기 위해 일반가정 유아의 성에 따른 애착 유형의 분포를 알아본 결과(<표 3> 참고), 남아들은 국제결혼가정 남아들처럼 ‘비교적 안정’이 35.6%가 가장 많았으나, 그 다음으로 ‘불안정-회피’(26.7%)와 ‘불안정-비조직’(24.4%)이 비슷한 비율이었으며, ‘매우 안정’이 13.3%로 가장 적었다. 일반가정 여아들은 43.5%가 ‘비교적 안정’ 애착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매우 안정’(28.3%)이었고, ‘불안정-비조직’(17.4%), ‘불안정-회피’(10.9%)의

〈표 4〉 자아지각의 하위 영역별 평균 및 표준편차

| 가족유형 | 자아지각 성 | 인지 능력 | | 신체 능력 | | 또래 수용 | | 어머니 수용 | | |
|----------------|-----------|-------|--------|-------|------------|-------|------------|--------|------------|-------|
| | | M | (SD) | t | M | (SD) | t | M | (SD) | t |
| 국제 결혼 가정 | 남(n=37) | 3.61 | (2.53) | | 3.47(2.90) | | 3.37(3.41) | | 3.37(2.97) | |
| | 여(n=23) | 3.57 | (3.84) | | 3.57(4.27) | | 3.49(3.50) | | 3.49(3.62) | |
| | 전체(n=60) | 3.60 | (3.07) | | 3.50(3.47) | | 3.43(3.43) | | 3.42(3.23) | |
| | | | | -0.47 | | -1.76 | | -0.84 | | -0.38 |
| 일반 가정 | 남(n=45) | 3.71 | (2.99) | | 3.73(2.29) | | 3.54(3.02) | | 3.44(3.80) | |
| | 여(n=46) | 3.57 | (2.13) | | 3.59(2.83) | | 3.45(3.10) | | 3.46(3.08) | |
| | 전체(n=91) | 3.64 | (3.08) | | 3.66(2.60) | | 3.49(3.05) | | 3.45(3.44) | |

순이었다. 일반가정 유아의 애착 표상의 안정성 점수의 평균은 남아는 2.51, 여아는 2.83으로 국제결혼가정 유아와 비슷하게 여아의 점수가 더 높은 경향이였다. 추가로 이러한 일반가정 유아의 애착 표상의 안정성 점수가 유아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아의 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_{58}=-1.77$, n.s.).

2. 유아의 자아지각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 유아의 자아지각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유아의 자아지각 평균 및 표준편차를 하위 영역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에서 보듯이 국제결혼가정 유아의 경우, 모든 하위 영역에서 3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인지 능력을 가장 긍정적으로 지각하였고($M=3.60$), 어머니 수용($M=3.42$)과 또래 수용($M=3.43$)이 가장 낮았다. 이를 일반가정 유아와 비교해 보면, 일반 가정 유아는 자아지각의 모든 하위 영역에서 3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신체 능력을 가장 긍정적으로 지각하였고($M=3.66$), 어머니 수용이 3.45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자아지각이 국제결혼가정과 일반가정 유아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인지 능력, 신체 능력, 또래 수

용, 어머니 수용의 모든 하위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국제결혼가정 유아의 성에 따라 자아지각이 어떠한 분포를 이루는지 살펴본 결과(<표 4> 참고), 남아는 자신의 인지 능력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지각하고($M=3.61$) 또래 수용($M=3.37$)과 어머니 수용($M=3.37$)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긍정적으로 지각한 반면, 여아들은 전체적으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점수가 수용에 대한 점수보다 높은 하였지만 하위 영역별로 유사한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국제결혼가정 유아의 자아지각이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인지 능력($t_{58}=.29$, n.s.), 신체 능력($t_{58}=-.63$, n.s.), 또래 수용($t_{58}=-.78$, n.s.), 어머니 수용($t_{58}=-.86$, n.s.)의 모든 하위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국제결혼가정 유아의 성에 따른 자아지각의 분포를 비교하기 일반가정 유아의 자아지각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에서 보듯이, 일반가정의 경우에도 남아들은 자신의 신체 능력($M=3.73$)과 인지 능력($M=3.71$)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어머니 수용($M=3.44$)을 가장 덜 긍정적으로 지각한 반면, 여아들은 능력에 대한 점수가 수용에 대한 점수보다 높은 하였지만 하위 영역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일반가정 유아의 자아지각

<표 5> 사회적 유능성의 하위 영역별 평균 및 표준편차

| 가족유형 | 사회적 유능성 | | 위축된 행동 | | | 공격적 행동 | | | 친사회적 행동 | | |
|----------------|----------|---|--------|-------|-------|--------|-------|-----|---------|--------|--------|
| | 성 | 성 | M | (SD) | t | M | (SD) | t | M | (SD) | t |
| 국제 결혼 가정 | 남(n=37) | | 2.17 | (.64) | 2.27* | 2.10 | (.91) | .35 | 3.80 | (.84) | 3.09** |
| | 여(n=23) | | 1.85 | (.58) | | 2.04 | (.96) | | 3.91 | (.93) | |
| | 전체(n=60) | | 2.05 | (.63) | | 2.08 | (.92) | | 3.84 | (.87) | |
| 일반 가정 | 남(n=45) | | 1.80 | (.81) | | 2.19 | (.83) | | 3.15 | (1.04) | |
| | 여(n=46) | | 1.77 | (.66) | | 1.87 | (.85) | | 3.52 | (1.04) | |
| | 전체(n=91) | | 1.79 | (.74) | | 2.03 | (.85) | | 3.36 | (1.05) | |

* $p < .05$ ** $p < .01$

이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인지 능력($t_{58}=1.29$, n.s.), 신체 능력($t_{58}=1.54$, n.s.), 또래 수용($t_{58}=-.86$, n.s.), 어머니 수용($t_{58}=-.19$, n.s.)의 모든 하위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의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교사가 평정한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하위 영역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교사들은 국제결혼가정 유아들이 위축된 행동($M=2.05$)이나 공격적인 행동($M=2.08$)보다는 친사회적 행동($M=3.84$)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반해 일반가정 유아들은 친사회적 행동($M=3.36$)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은 국제결혼가정 유아와 비슷하였으나, 위축된 행동($M=1.79$) 점수가 공격적 행동($M=2.03$)보다 낮았다. 이러한 사회적 유능성이 국제결혼가정 유아와 일반가정 유아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위축된 행동($t_{149}=2.27$, $p < .05$)과 친사회적 행동($t_{149}=3.09$, $p < .01$)에서 유의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즉 국제결혼가정의 유아는 일반가정의 유아에 비해

교사에 의해 위축된 행동과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인식되었다.

다음으로 국제결혼가정 유아의 성에 따라 사회적 유능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유아의 성에 따른 사회적 유능성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에서 보듯이, 위축된 행동은 국제결혼가정 남아($M=2.17$)가 여아($M=1.85$)보다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격적 행동이나 친사회적 행동의 평균 점수는 비슷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유능성이 유아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국제결혼가정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중에서 위축된 행동($t_{58}=1.99$, $p < .05$)에서 성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였다. 즉 국제결혼가정 유아 중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교실 내에서 불안하고 위축된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가정 유아의 성에 따른 사회적 유능성 점수를 일반가정 유아와 비교해 보면(<표 5> 참조), 일반가정 유아들의 경우 남아가 여아에 비해 공격적 행동은 더 많이 하고 친사회적 행동은 더 적게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사회적 유능성 점수가 유아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I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표상과 자아지각, 그리고 교사가 평정한 사회적 유능성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결혼가정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이 농촌지역의 일반가정 유아와 비교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유아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 문제 중심으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 만 3~5세 유아의 애착 유형을 크게 안정 애착과 불안정 애착으로 분류하면, 국제결혼가정 유아의 58.3%, 일반가정 유아의 60.5%가 어머니에 대해 안정 애착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나서 농촌지역의 경우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와 일반가정 자녀 간에 어머니에 형성한 안정 애착의 비율이 비슷하였다. 이러한 애착 유형에 기초하여 애착 표상의 안정성 점수를 산출하여 국제결혼가정과 일반가정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본 결과를 해석할 때, 농촌지역 유아들의 애착 유형의 분포가 도시 유아들을 대상으로 애착 유형을 조사한 선행 연구의 결과와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4세 유아를 대상으로 애착 이야기 완성 과제를 사용하여 어머니에 대한 애착 유형을 조사한 박경자·권연희(2005)의 연구에서는 안정 애착이 85%이었고, 만 4,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애착 이야기 완성 과제를 실시한 김숙령(2001)의 연구에서는 안정 애착 비율이 79.3%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본 연구 대상인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 유아들과 일반가정 유아들은 상대적으

로 안정 애착의 비율이 낮고, 불안정 애착 유형의 비율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의 차이는 연구 대상의 지역적 특성이나 계층별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국내의 박경자·권연희(2005)나 김숙령(2001)의 연구가 도시에 거주하는 중상류층 이상을 대상으로 한 반면, 본 연구 대상은 부모의 교육 수준이나 수입에 비추어 볼 때 중하류층이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하지는 않았으나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양육 행동과 양육 신념 등에서 도시와 농촌, 중상류층과 중하류층 등 하위문화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유아가 경험하는 양육 환경에서 차이가 나고, 이것이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유형에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안정 애착 비율이 낮은 것과 더불어 본 연구 결과 국제결혼가정을 포함한 농촌지역 유아들이 선행 연구들에 비해 불안정 애착의 비율이 더 높다는 사실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3, 4세 유아를 대상으로 실험실 상황에서의 애착 행동과 이야기 완성 과제의 애착 표상과의 관계에 관한 신혜원(2004)의 연구에서 회피 유형에 속하는 유아는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할 때 어머니를 안전 기반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양육자로부터 거부되는 경험을 한 유아들이 양육자의 거부적 행동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수단으로 애착 욕구의 표현을 최소화하는 회피 애착 패턴을 발달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Cassidy & Berlin, 1994) 본 연구 결과 불안정-회피 애착 표상을 가지는 유아의 어머니들의 양육태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서 특히 국제결혼가정 유아의 경우 불안정-비조직 애착 집단의 비율이 선행 연구들에 비해서 높았는데, 이는 비조직 유형으로 분류된 유아가 애착 대상자와 역할 전이가 일어나 어머니를 보호하거나 훈육하는 행동으로 어머니를 통제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Cassidy & Marvin, 1992)에 비추어 볼 때, 국제결혼가정을 이루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이 문화에 적응하느라 부모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상황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다음으로 국제결혼가정 유아의 성에 따라 애착 표상의 안정성 점수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본 결과, 여아가 남아에 비해 다소 안정적인 애착 표상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는 유아의 애착에서 성차가 유의하지 않았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들(민정원, 2001; 박상미, 1999; Cassidy, 1988)의 결과와는 일치하지만, 여아가 남아보다 애착 표상이 더 안정적이라는 선행 연구(이민주, 2002; Page, 1998)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본 결과를 단순하게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첫째, 아직 애착 표상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충분하지 않아서 유아의 성에 따라 애착 표상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에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 결과에서도 유의도 .05 수준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10 수준에서는 일반 가정 여아가 남아가 비해 애착 표상의 안정성 점수가 더 높았고, <표 3>에 제시된 애착 유형 분포에서도 국제결혼가정 여아나 일반가정 여아 모두 남아에 비해 어머니에 대해 '매우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비율이 더 많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례수가 충분히 크다면 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 조심해야 한다. 또한 Bowlby(1973)도 부모가 여아에게는 더 민감하고 정서적인 반응을 보이고 남아에게는 엄격한 사회화 기대를 요구하는 등 유아와 상호작용을 할 때 유아의 성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이고 이러한 경험에서의 차이가 유아의 내적실행모델에 반영되어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이민주, 2002, 재인용). 이처럼 애착 표상의 성차와 관련해서는 추후 지속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촌지역 유아의 자아지각은 모든 하위 영역의 점수가 3.37에서 3.73의 범위에 있어서 자아지각 점수가 4점 척도로 이루어진 것을 감안할 때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 유아와 일반가정 유아 모두 대체로 자신의 능력과 또래나 어머니에게 수용되는 정도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 중상류층 3, 4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민정원(2001)의 연구에서는 자아지각 하위 영역별 점수가 3.6에서 3.7의 범위에 있었고, 이민주(2002)의 연구에서도 중상류층 3, 4세 유아의 자아지각 점수가 영역별로 3.4에서 3.8의 범위였음에 비춰볼 때, 본 연구 대상 유아들의 자아지각도 선행 연구들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또한 국제결혼가정 유아와 일반가정 유아 간에 자아지각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표 4>에서 제시한 평균들을 비교해볼 때 국제결혼가정 유아가 일반가정 유아에 비해 신체 능력에 대한 자아지각이 조금 더 부정적인 경향이 있긴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 있다. 첫째, 국제결혼가정 유아들이 외모에서의 차이로 인해 대인관계 형성 등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한 오성배(2005)의 연구 결과와는 달리 본 연구 대상들은 대부분이 중국이나 필리핀 등으로 다른 일반 또래에 비해 외모가 특출하게 차이가 없었고, 농촌지역의 경우 국제결혼이 10명에 4명꼴로 이제는 특이한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이 특이한 외모로 인한 따돌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왜곡된 자아지각을 가지지 않았을 수 있다. 둘째, Harter(1995)는 유아가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점에서 유능하고자 하는 유아의 소망과 실제 능력 사이에 아직 분화가 이루어지지 못해 유아가 자신을 긍정적으로 지각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아직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인 학령전 시기에는 Stipek(1981)이 지적한 바와 같이 유아는 자아지각에 대한 판단이 불명확하거나 비현실적이어서 현실과 자신의 바람을 혼동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실제로 <표 4>에도 제시된 바와 같이 유아들의 자아지각 점수가 거의 4점에 가깝고 표준편차 또한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지각 척도가 만 3, 4, 5세에게는 변별력이 크지 않아서일 수 있다.

또한 유아의 성에 따라 자아지각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국제결혼가정과 일반가정 모두 유아의 성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는 능력과 수용에 관한 자아지각의 모든 하위 영역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던 우수정(200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여아가 남아보다 또래 수용에 대한 지각이 높다고 보고한 이민주(2002)와 박상미(1999)의 연구 결과, 그리고 남아가 일반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여아는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처럼 자아지각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의 결과가 일관되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서로 다른 연령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동일 연령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각 영역에 따라 결과가 일치되지 않아서 아동의 자아지각이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 유능성과 관련하여 교사들은 국제결혼가정 유아가 일반가정 유아에 비해 위축된 행동과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

하였으며, 특히 국제결혼가정의 경우 남아가 여아에 비해 위축된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축된 행동과 관련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이 부모의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어서 부모가 아동의 신호에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고, 부정적 정서나 통제를 더 많이 하고, 아동과 강압적이거나 회피적으로 상호작용할수록 아동은 위축된 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는 선행 연구(LaFreniere & Dumas, 1996)에 비추어볼 때, 국제결혼가정의 부모들의 자녀양육행동이 어떠한지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국제결혼가정의 남아가 여아보다 교실에서 더 위축된 행동을 보이는 결과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Lewis, Feiring, McGuffog과 Jaskir(1984)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아기의 애착 안정성이 6세 때 남아의 내면적, 외현적 문제와 관련이 있으나 여아의 경우는 관련이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6세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Cohn(1990)은 불안정 애착된 남아는 안정 애착된 남아보다 또래와 교사에 의해 덜 선호되고 또래에 의해 더 공격적으로 지각되고, 행동적 문제를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관계는 여아에게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도 국제결혼가정의 남아의 경우 어머니와 불안정한 애착 관계를 형성한 경우가 전체의 43%로 여아(39%)에 비해 많고, 이들의 불안정한 애착으로 인해 불안정한 실행모델을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 불안해하고 부정적인 기대와 믿음을 가져서 교실 내에서도 불안하고 위축된 행동을 더 많이 보였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추후 연구를 통해서 검증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 국제결혼가정의 유아가 일반가정의 유아에 비해 기관 내에서 또래나 교사에게 도움을 주는 등의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결혼 가정 유아들은 이미 자신의 어머니가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외국인이고 자신이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또래나 교사에게 더 잘 보이고자 하는 욕구로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하였을 수 있다. 혹은 자녀에게 좋은 모델이 되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부모의 자녀가 친사회성이 높다는 선행 연구(Murphy & Eisenberg, 1997)의 결과에 비추볼 때, 실제로 국제결혼가정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친사회성을 더 많이 격려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국제결혼가정 부모의 양육행동을 조사하여 이것이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의 교실 내에서의 행동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검증하는 연구를 통해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조사한 국제결혼가정 유아들의 경우 특성이 서로 다른 하위 집단으로 구성되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국제결혼가정 유아가 일반가정 유아에 비해 위축된 행동과 친사회적 행동을 모두 더 많이 한다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것과는 연결 지어 해석해 볼 수 있다. 실제로 본 자료를 기초로 국제결혼가정 유아의 위축된 행동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01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고, 군집분석을 한 결과 친사회적 성향이 강하고 위축과 공격적 행동을 상대적으로 덜 보이는 유아 집단(51.7%)과 친사회적 성향이 약하고 위축과 공격적 행동을 많이 보이는 유아 집단(48.3%)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국제결혼가정 유아들이 유아교육기관에서 크게는 위축되거나 공격성을 보이는 등 부적응을 하거나 아니면 친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등의 적응을 잘하는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국제결혼가정 유아들 중에서도 적응을 잘 하고 있

는 유아와 그렇지 않은 유아들을 구분하여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규명함으로써 국제결혼가정 유아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볼 때,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 유아 중 남아가 교실 내에서 위축된 경향을 보이긴 하지만 국제결혼가정 유아들은 전반적으로 사회·정서적 적응에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유형의 분포가 서울의 중·상류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와는 안정 애착의 비율이 낮은 등 차이가 나지만, 이것도 농촌지역 일반가정 유아와 비교했을 때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국제결혼가정 유아들이 그 지역 사회의 다른 유아들과 비교했을 때 어머니와의 애착 형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사가 평정한 사회적 유능성과 관련해서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하는 등 긍정적인 적응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상 선정에서의 제한점으로 인해 본 연구의 결과 해석에 있어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의 유아 선정의 실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유아를 중심으로 표집하였고, 부모의 연구 협조를 받은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국제결혼가정 유아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리라 예상되는 유아들, 즉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유아교육기관에 다니지 못하거나, 어머니가 가출하였거나, 부모가 연구 참여를 꺼려하는 유아들은 연구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또한 본 연구 대상 중 국제결혼 집단의 어머니들이 일반 농촌가정 어머니들보다 교육 수준이 높아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은 어머니들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많다. 이와 함

게 전국적으로 국제결혼여성의 국적은 베트남이 가장 많은데 비해 본 연구 대상 국제결혼집단 어머니들의 국적은 필리핀이 가장 많았다. 현지 교사와 원장들의 보고에 의하면 필리핀인이 영어 사용이 가능한 점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적응하기가 좀 더 쉽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점도 본 연구에서 국제결혼 어머니 자녀들의 적응에 도움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국제결혼가정 유아들 중에서는 아직 한국어로 의사소통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이들 또한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제한점으로 본 연구 결과를 국제결혼가정 유아에게 일반화하는 데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국제결혼가정의 세부적인 특성을 구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 표상에만 초점을 두었으나, 어머니가 외국인인 국제결혼가정이기에 어머니만큼 자녀양육에 있어 아버지나 조부모의 역할도 중요하므로 아버지/조부모에 대한 애착 관계와 어머니에 대한 애착 관계를 함께 비교 연구하는 것도 흥미로울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그동안 정책은 물론이고 학문적인 분야에서도 소외되어 왔던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연구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 대상이었던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의 유아들이 사회·정서적 발달에서 일반가정의 유아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 또한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대상 표집의 편중 문제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어려운 양육 환경이라고 예상했던 국제결혼가정의 유아가 사회·정서적으로 적응을 잘 하고 있다면, 이들을 역추적 하여 이들의 어머니, 아버지 변인의 영향, 환경적 영

향, 유아교육기관의 영향 등을 조사한다면, 이들 국제결혼 2세들을 위한 바람직한 양육 환경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유아교육기관 교사와 원장과의 면접에 따르면, 국제결혼가정의 유아들이 기관에 처음 왔을 때에 비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측면에서 자극을 받아 긍정적으로 발달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국제결혼가정 유아의 부모를 포함하여 환경적 변인뿐 아니라 이들이 유아교육기관에 다니 시기나 유아교육기관 경험에서의 차이 등도 같이 살펴봄으로써 국제결혼가정 유아와 국제결혼가정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밝힘으로써 국제결혼가정의 안정 및 우리 사회의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를 계기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유아들을 위한 보육 및 교육 지원에도 신경을 쓰고, 국제결혼가정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기보다는 각 가족이 처한 상황과 배경에 따라 세분화된 정책을 마련하여 각 국제결혼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교육인적자원부(2006). “다문화 가정” 품어 안는 교육 지원 대책. [http : //www.moe.go.kr](http://www.moe.go.kr)에서 2007년 6월 22일 인출함.
- 권연희·박경자(2003).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성, 대인간 문제 해결 전략 및 어머니 행동. *아동학회지*, 24(3), 27-44.
- 김숙령(2001). 유아의 정신적 표상에 의거한 부모와 교사에 대한 애착 측정 도구 개발과 적용. *유아교육연구*, 21(3), 95-117.
- 민정원(2001). 아동의 애착안정성과 자아지각 및 사회적 능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경자·권연희(2005). 나레이티브를 통한 유아의 애

- 착 표상 측정의 타당화 연구 : 애착 안정성, 어머니-유아 상호작용 행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6(4), 247-262.
- 박미경·엄정애(2007). 결혼이민자 가정 유아의 유아 교육기관 생활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아동학회지**, 28(2), 115-136.
- 박상미(1999).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자아지각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혜원·곽금주·박광배(1995). **K-WPPSI 지침서**. 서울 : 도서출판 특수교육.
- 설동훈·김운태·김현미·윤홍식·이혜경·임경택·정기선·주영수·한건수(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방안**. 보건복지부.
- 신혜원(2004). 3-4세 유아의 애착 행동과 애착 표상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오성배(2005). 코시안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교육**, 32(3), 61-83.
- 우수정(2001). 유치원 아동의 자아지각과 또래 유능성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미숙(2005). **국제결혼 이주가정의 자녀문제**. 전라남도 주관 국제결혼 이주여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워크숍 자료.
- 이민주(2002). 유아의 애착 표상과 자아지각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혜·최혜영·김미혜(1990). 아동의 사회적 능률성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 유치원용 및 초등학교 1, 2학년용 척도.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논집**, 4, 175-189.
- 이혜경(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28(1), 73-106.
- 쯔지모토 도시코(2003). **일본 국제결혼 : 현재 상황과 문제점**. 안양진진상복지관 이주여성쉼터 “위홈” 주관 토론 자료.
- 통계청(2007). 2006년 혼인통계 결과. <http://www.mogef.go.kr>에서 2007년 6월 22일 인출함.
- 한국염(2005).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실태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전라남도 주관 국제결혼 이주여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워크숍 자료.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Hillsdale : Erlbaum.
- Belsky, J., Rovine, M., & Taylor, D. G. (1984). The Pennsylvania infant and family development project : 3. The origin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infant-mother attachment : Maternal and infant contributions. *Child Development*, 55, 706-717.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 Vol.2. Separation : Anxiety and anger*. New York : Basic Books.
- Bretherton, I., & Munholland, K. A. (1999). Internal working models in attachment relationships : A construct revisited.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pp.89-114). NY : The Guilford Press.
- Bretherton, I., Ridgeway, D., & Cassidy, J. (1990). Assessing internal working models of the attachment relationship : An attachment story completion task for 3-year-olds. In M. T. Greenberg, D. Cicchetti, & E. M. Cummings(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pp.293-308). Chicago Press.
- Bronfenbrenner, U. (1986). Ecology of the family as a context for human development : Research perspective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723-742.
- Cassidy, J. (1988). Child-mother attachment and the self in six-year-olds. *Child Development*, 56, 121-134.
- Cassidy, J., & Berlin, L. J. (1994). The insecure/ambivalent pattern of attachment : Theory and research. *Child Development*, 65, 971-991.
- Cassidy, J., & Marvin, R. S. (1992). *Attachment organization in preschool children : Procedures and coding manual : Vol. 5.2*. Unpublished manual.
- Cohn, D. A. (1990). Child-mother attachment of six-year-olds and social competence at school. *Child Development*, 61, 152-162.
- Crick, N. R. (1996). The role of overt aggression, relational aggression, and prosocial behavior in

- the prediction of children's future soci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 2317-2327.
- Golby, B., Bretherton, I., Winn, L., & Page, T. (1995). *Coding manual for the Attachment Story Completion Task*.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Wisconsin at Madison.
- Harter, S. (1990). Issues in the assessment of the self-concep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A. M. LaGreca(Ed.), *Through the eyes of the child : Obtaining self-reports from children and adolescents*. Boston : Allyn & Bacon.
- Harter, S. (1995). 자기평가 차원으로서의 능력 : 자아 가치의 종합적 모형. 김기정(번역). 자아의 발달. Leahy, R.의 *The development of the self*. 서울 : 문음사.
- Harter, S., & Pike, R. (1984). The pictorial scale of perceived competence and social acceptance for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55, 1969-1982.
- LaFreniere, P. J., & Dumas, J. E. (1996). Social competence and behavior evaluation in children ages 3 to 6 years : The short form(SCBE-30). *Psychological Assessment*, 8(4), 369-377.
- Lewis, M., Feiring, C., McGuffog, C., & Jaskir, J. (1984). Predicting psychopathology in six-year-olds from early social relations. *Child Development*, 55, 123-136.
- Maslin, C., Bretherton, I., & Morgan, G. A. (1986). *Influence of attachment security and maternal scaffolding on mastery motivation*.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ant Studies. L.A.
- Murphy, C. B., & Eisenberg, N. (1997). Young children's emotionality, regulation, and social functioning and their responses when they are targets of a peer's anger. *Social Development*, 6(1), 18-36.
- Page, T. F. (1998). *Linkages between children's narrative representations of families and social competence of child-care setting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Rose-Krasnor, L., Rubin, K. H., Booth, C. L., & Coplan, R. (1996). The relation of maternal directiveness and child attachment security to social competence in preschooler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9(2), 309-325.
- Shaffer, D. J. (2005).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5th ed.)*. CA : Wadsworth/Thompson Learning.
- Stipek, D. J. (1981). Children's perceptions of their own and their classmates' abilit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3, 404-410.

2007년 6월 30일 투고 : 2007년 9월 9일 19채택